마중여행사 문의:02-730-2270
시베리아횡단열차 4일
러시아 연해주를 찾아서
10/16, 10/23, 11/6, 11/13 출발



2015년 데뷔한 걸그룹 다이아(왼쪽부터 솜이 은채 유니스 기희현 예빈 주은 제니 정채연)는 최근 처음으로 음악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정상에 빠르게 올라가지 못해도 오랫동안 무대에 서고 싶다"면서도 "음원차트 1위를 꼭 해보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우 우'로 음악프로 1위…"어두운 터널 빠져나온 기분이에요"

'여덟 빛깔' 보석으로 돌아온
다이아

잦은 멤버교체…서로 채우기 위해 노력
10개월 공백…자작곡 쓰며 자기계발도
다음 목표…음원차트 1위 꼭 해봐야죠

"우리는 왜 '못 뜨나' 하는 걱정이 컸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벼랑 끝'에 섰다가 다시 돌아왔다. 실력이나 외모 등 여느 그룹과 비교해 뒤처지는 게 없어 보이는 걸그룹 다이아(유니스·기희현·제니·정채연·예빈·은채·주은·솜이)가 그동안의 오랜 부진을 끊어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준비"해 최근 발표한 네 번째 미니앨범 '서머 에이드' 타이틀곡 '우 우'(Woo Woo)가 SBS MTV '더쇼'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다이아가 각종 음악 관련 순위와 관련해 1위라는 성적을 받아든 것은 2015년 9월 데뷔 후 처음이다. 햇수로 4년, 일수로는 1066일 만이다.

1위를 자축하는 의미로 22일 서울 신사동 한 카페에서 인터뷰 자리를 마련한 이들은 "항상 꿈으로만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올해 4년차를 맞이한 그룹으로 그동안 발표한 8장의 음반과 다채로운 방송 활동 등에 비하면 "아쉽다"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성과다. 이들 역시 부인할 수 없는 뼈아픈 현실에 "우리는 왜 '못 뜨나'라는 의문과 고민의 연속이었다"고 털어놨다.

"모든 멤버가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다이아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콘셉트가 하나로 정리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데뷔 후 귀엽고 발랄한 모습을 고집했고, 다양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까지 온 것 같다. 이번에 도전한 '큐티 섹시' 콘셉트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다. 이번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잦은 멤버 변화도 이들의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요소 가운데 하나다. 멤버 중 승희가 2016년 탈퇴했고, 그 자리를 은채가 채웠다. 또 기희현과 정채연이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1에 출연하면서 팀 활동이 중단됐고, 2017년 솜이와 주은을 영입해 9인조로 팀을 재편했다가 2018년 은진이 탈퇴했다.

"혼돈의 시간이었다.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었다. 빈자리는 있으니까 남아있는 멤버들끼리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려고 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뚜렷한 성과 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또 "빨리 위(정상)로 올라가지는 못해도 오랫동안 무대에 서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데뷔하면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던 안일함도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버렸단다. 의도치 않게 길어진 10개월의 공백은 그렇게 이들에게 생각과 마음가짐의 변화를 안겨준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암울했지만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이들은 자기계발에 더욱 힘썼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8명의 멤버 가운데 주은, 예빈, 기희현 3명은 자작곡을 만들었고, 앨범에 곡이 수록되는 짜릿함도 맛봤다.

이들은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한 발자국 정도 발걸음을 뗐다고 했다. 1위를 처음 맛봤으니 이제는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커졌다.

"1위를 하던 날 많이 울었다. 기뻐서 운 것도 있지만,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솔직히 데뷔하고 나서도 초반에는 더 빨리 1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더라. 누구나 1위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최고 성적은 음원차트에서 29위였다. 이번 기회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음원차트에서 1위를 꼭 해보고 싶다."

멤버들의 개성과 장점을 살리고, 다이아라는 정체성을 알리는 데 일조한 이번 앨범의 '큐티 섹시' 콘셉트는 당분간 이어갈 계획이다. 10개월이라는 공백도 이 콘셉트를 정하는 데 생긴 만큼 앞으로 "제대로 소화하고 싶다"는 이들이다.

막내인 솜이가 내년 미성년자를 벗어나 이제 이들에게는 '큐티'라는 타이틀을 떼고 성숙함을 강조한 '섹시함'을 드러낼 시간이 충분하다.

"대중에게 다이아라는 그룹을 확실히 각인시킬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음도 한층 편안해졌고 부담 같은 복잡한 생각들을 버리고 나니 무대를 즐기게 됐다. 처음으로 대표님에게 '무대 잘했다'라는 칭찬도 받았다.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다. 다이아의 인지도도 올리고 '다이아가 노래도 잘하네'라는 평가도 받고 싶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윤두준 입대에 '식샤를…' 조기종영

남성그룹 하이라이트 멤버이자 연기자 윤두준(29)이 24일 입대한다. 이에 따라 출연 중이던 tvN '식샤를 합시다' 시즌3는 조기 종영된다. 무릎 부상으로 인한 질병 등 사유로 입대를 연기했던 윤두준은 하이라이트의 또 다른 멤버 양요섭(28)과 의무경찰에 지원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하게 됐다. 윤두준의 갑작스런 입대로 현재 방송중인 '식샤를 합시다3'는 14회로 종영한다. 당초 16부작인 드라마는 9월4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주인공 윤두준의 입대로 촬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 28일 종영된다.

펜타곤 이던·옌안, 활동 일시중단

그룹 펜타곤의 이던과 옌안이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2일 "펜타곤 멤버 이던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옌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집중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펜타곤을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전해 드리며 펜타곤은 이던, 옌안을 제외한 8인체제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 그룹 트리플H 멤버로도 활동해온 이던은 4일 팀 동료 현아와 2년째 열애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의 반발을 샀다. 트리플H 팬사인회, 방송활동을 중단했으며 펜타곤 팬미팅에도 불참했다.

신철 대표, 부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영화제작사 신씨네의 신철 대표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8대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한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지영)는 21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철 대표를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위촉했다. 9월1일부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일하며, 임기는 3년이다. 신철 신임 집행위원장은 1980년대 말 기획영화의 시대를 연 프로듀서 1세대의 대표적인 기획·제작자로 꼽힌다. 1988년 영화전문 기획사 신씨네를 설립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베를린 리포트' '결혼이야기' '미스터 맘마' '편지' '약속' '엽기적인 그녀' 등을 기획 및 제작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 1조 돌파

박진영이 이끄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했다. JYP는 22일 오전 시총 1조원을 넘어서며 2만9000원으로 장을 마감해 이날 시총 1조 108억원을 기록했다. 2001년 8월30일 코스닥에 입성한 지 17년여 만이다. 이날 시총 1조 477억원으로 업계 1위인 SM엔터테인먼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증권가는 이제 JYP가 1996년 4월 창립 후 22년여 만에 시총 1조원 시대를 넘어 업계 1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트와이스와 갓세븐의 활약, 스트레이키즈의 성장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부선, 경찰 자진출석…진술은 거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이 22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진술을 거부하고 돌아갔다. 김부선은 경찰 출석 50여분 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께 경찰서 현관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재명 씨의 거짓말, 결정적인 거짓말 자료를 드렸고, 9월 변호사 입회 하에 고소장까지 정식으로 만들어 진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바른미래당측이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